



가를 바라며

광전재료과 공업연구원 박종욱

우리는 진리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진리는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삶속에 있다고 깨달음을 얻는 모든 성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은 진리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는 것 그 자체가 진리이다. 그러나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 앞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사람은 누구나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 죽음이 임박해서 새삼스러 실감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엄연한 진리를 망각 속에 묻어둔 채로 지낸다.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데려갈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아끼고 집착하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마치 어둠이 오면 다 버려 두고 뽕뽕이 흩어질 텐

데 하루 종일 팅땃기 집짓기에 열중하는 소꿉장난하는 아이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웅다웅하면서 손뼉놀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지만도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알면은 고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습이 되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독이라고 말한다.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을 알면서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소유욕을 키워왔다.

소유의 참 뜻은 '한시적인 관리'이지 영원한 소유란 없는 것이다. 또 소유한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유란 소비할 때에 비로소 확인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돌고 도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진리다. 그러기에 일체 만물은 서로 먹어지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바꿔 쓰며 한마음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요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내 육신 내 재산 내 사랑 내 자식을 내 것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거기엔 너, 나의 대립과 투쟁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요 자연법칙에 대한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일체 만물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이 흐르듯이 채워지면 비워야 하고 비우면 채워진다. 내가 놓으면 상대가 살고 상대가 놓으면 내게 또 채워지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주고받는 공생·공용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도리이다. 거기엔 갈등도 투쟁도 괴로움도 없다. 편안함이 있을 뿐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또 비우면 또 채워지는데, 주면 받게 되고 또 받게 되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애지중지 할 게 남겠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 생긴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곧으면 곧을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된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는데 대한 불안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 권력은 잡고 보는 것, 자리는 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유에 집착한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나 개중에는 ‘나’, ‘나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중생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사에 걸림이 적고 한결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를 하게 되면 매사에 걸림이 없어진다.

‘나’, ‘나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존재

와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팽팽 갇힌 풀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팔아서 대신 소유욕 즉 나의 모습, 나의 명예·권위·재산 따위를 사들이고 하는 경제동물이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알음알이인 지식으로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생들을 지배하는 삶의 기억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죽으면 이러한 지혜와 몸동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알면서도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 묶여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삶을 살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꼭 차있는 상태를 우리는 느낀다. 이러한 마음상태를 공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허하다고 말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배웠던 알음알이인 지식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 지혜란 ‘본래부터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와 상반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어리석음이란 물질과 육신은 필경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인연 소산의 현상계에선 실체로서의 ‘나’란 것이 없다고 하셨다. 누구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걸림 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기술 표준가족

하느님은 반문에 있다. 삶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계산을 잃으면 괴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설파하신 참 진리와는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꼭 차있는 자만심, 애착, 소유욕을 비워 보면 비워진 마음에 대신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보라.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빈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텅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을 비우고 살라 라고 한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없앤다는 것과 같다. 마음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억이라고 한다. 이 삶의 기억을 없애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인내로 참으면서 억눌러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삶의 기억들을 퍼내는

것이다. 억눌러 있는 마음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삶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넘쳐 흘러버린다.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대로 간직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음을 비우면 삶 자체가 새로워지고 매사에 의혹이 없어지며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용다용하고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 기술표준원 식구들은 상하 모든 직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주시하면서 참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림이다.

